

경주 용강동고분 발굴조사개보 (慶州 龍江洞古墳 發掘調査概報)

趙 由 典

<慶州古蹟發掘調査團長>

申 昌 秀

<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士>

目次

- | | |
|-----------------|----------|
| I. 序言 | IV. 出土遺物 |
| II. 古墳의 位置 및 現況 | V. 結言 |
| III. 發掘調査概要 | |

I. 서언(序言)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경주고분발굴조사단(慶州古墳發掘調査團)에서는 경주시용강동(慶州市龍江洞)에 있는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폐고분(廢古墳)에 대한 발굴조사(發掘調査)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발굴조사된 용강동고분(龍江洞古墳)은 앞서 시내중심지역(市內中心地域)에서 발굴조사된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인 대형고분(大形古墳)들과는 시기적(時期的)으로나 구조적(構造的)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고분의 발굴은 그동안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통일기(統一期) 평지석실분(平地石室墳)의 정식적인 발굴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었다.

이 용강동고분은 발굴이 시작되기 전까지 마을 가운데에 방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파괴가 심하였고 또 봉분외부로는 도굴(盜掘)된 흔적도 보이고 있어 당초 부장유물에 대한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나 발굴조사결과 석실내부(石室內部)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출토(出土)된 예(例)가 없었던 가채토용(加彩土甬)을 비롯한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부장유물들과 함께 특이한 고분구조(古墳構造)가 밝혀짐으로서 뜻밖의 성과를 얻게 되어 학계(學界)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용강동고분(龍江洞古墳)의 정식 발굴조사보고서(發掘調査報告書) 간행(刊行)에 앞서 그 조사개요(調査概要)와 출토유물(出土遺物)을 이번 기회를 빌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II. 고분(古墳)의 위치(位置) 및 현황(現況)

이번에 발굴조사된 용강동고분은 경주시(慶州市) 용강동(龍江洞) 1130번지 금우방구씨(金又方久氏) 소유(所有)의 밭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통일신라시대 폐고분(廢古墳)으로 주변의 민가건축과 경작 등으로 인해 봉분의 많은 부분이 파괴된 채 방치되어 있어 마을에서도 「개무덤」 「고려장」 등으로 불려지고 있었다. 고분의 외형(外形)은 원형 봉분(原形封墳)이었을 것이나 파괴되어 동서 13m 남북 17m 크기의 사다리꼴 형태로 변형되어 있었으며 봉분의 높이는 약 3m로 정상부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었다. (圖 1) 그리고 고분의 외주(外周)에는 20~40cm 크기의 갑석(雜石)으로 된 약 1.5m 높이의 석축(石築)이 쌓여 있었으며 봉분 서남쪽의 석축(石築)아래에는 길이 1.8m 높이 20cm 정도 크기의 장대석(長臺石) 1개와 그 동쪽으로 바로 붙여서 같은 형태의 장대석(長臺石)이 일부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 장대석은 봉분의 외조(外周)를 장식(裝飾)했던 호석지대석(護石地臺石)으로 생각되었으며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원래의 위치인 것으로 보였다(圖 2). 따라서 이 고분도 이 시기의 왕릉(王陵)으로 추정되고 있는 봉분의 외주(外周)에 호석(護石)을 둘러 장식한 고분들과 마찬가지로 왕릉급(王陵級)의 무덤으로 추측되었으며 남아 있는 호석지대석(護石地臺石)을 기준으로 복원(復元)해 본 결과 고분의 저부(底部) 직경이 약 16m, 둘레가 약 50m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분의 주변으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민가(民家)와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고분 북쪽의 민가 안에는 이 고분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호석지대석(護石地臺石)과 면석(面石) 등 다수(多數)의 석재(石材)들이 장독대나 툇마루의 디딤돌로 사용되고 있었고 일부 석재들은 마을 입구의 농수로(農水路)에 이용되거나 도로변(道路邊)에 묻혀 있어 이 고분이 봉분의 외조(外周)에 지대석(地臺石)과 면석(面石)·갑석(甲石)을 갖춘 호석(護石)이 치장(置裝)된 통일기(統一期)의 석실분(石室墳)이었음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었다.

이 고분 주변에서는 이 고분외에 다른 고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고분의 바로 동남편(東南便)에 위치하고 있는 소금강산(小金剛山)에는 백율사(栢栗寺), 굴불사지(掘佛寺址) 등 신라시대 사찰들과 함께 많은 고분들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1968년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의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이 부근에서 파괴된 통일기(統一期)의 석실분(石室墳) 1기(基)가 조사된 바 있다¹⁾.

III. 발굴조사개요(發掘調查概要)

1. 발굴경위(發掘經緯) 및 경과(經過)

강동고분(江洞古墳)의 그동안 이 고분에 관심을 두고 있던 경주(慶州)의 향토사학가들에 의해 수차의 답사(踏査)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고분의 외형(外形)으로 보아 신라의 왕릉급(王陵級)에 해당하는 중요한 고분으로 추정되면서 이에 대한 학술적인 발굴조사와 아울러 정비보존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오던 중 마침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선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발굴조사가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경주고분발굴단(慶州

1) 姜仁求, <考古美術 뉴스 - 慶州市 龍姜洞 古墳發掘> 《考古美術》 95號, 1968

古墳發掘團)에서 맡도록 결정됨에 따라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서는 단내요원(團內要員)중의 일부로 발굴팀을 편성하여 이 조사를 편성하였다. 발굴조사는 1986년 6월 16일에 착수하여 동년(同年) 8월 31일까지 77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그동안 연인원 509명의 발굴인부가 투입되었다.

발굴조사(發掘調査)는 먼저 석실내부(石室內部)로 들어가는 통로적인 이도(羨道)를 찾기 위해 고분의 중심부로 추정되는 정상부에 설정한 기준목(基準木)을 중심으로 봉분을 4분(分)하고 봉분의 서남부분(西南部分)에 쌓여 있는 석축(石築)을 제거(除去)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약 1.5m 높이의 석축(石築)이 제거(除去)하자 잔자갈과 쓰레기들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었고 이 퇴적층을 제거하자 발굴전부터 일부 노출되어 있던 호석지대석(護石地臺石) 동편으로 지대석열(地臺石列)이 곡선을 그리며 연이어 노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위로 놓였던 석면(石面)이나 갑석(甲石)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서남구역(西南區域)에서는 모두 4개의 호석지대석이 노출되었는데 사면(土面)과 옆면이 곱게 다듬질 되어 있었고 외면(外面)이 완만하게 곡선(曲線)을 이루고 있었다. 크기는 길이가 1.8~2.5m 로 일정하지 않았으며 상면(上面)의 넓이가 30~40cm 높이는 20~30cm 정도였다.

봉분 서남부 외곽의 석축과 퇴적층을 제거한 후 곧 이도(羨道)를 찾기 위한 봉토제거작업(封土除去作業)에 착수하였는데 봉분의 정상부에서부터 상당한 깊이까지 교란된 자갈층이 계속되고 있어 이 교란층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圖3). 교란층과 봉토를 일부 제거하고 이도(羨道)천정과 석대(石臺)의 외벽(外壁)이 일부 노출되었을 때는 발굴착수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7월 1일이었다. 그리고 연도의 천정식 윗면보다 약 30cm 정도 낮은 레벨에서 호석지대석(護石地臺石) 안쪽으로 3m 거리를 두고 또 하나의 호석열이 노출되어 이 고분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내외 2중으로 호석(護石)을 만든 특이한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이 안쪽의 내호석열(內護石列)은 외호석(外護石)과는 달리 할석(割石)을 사용하여 70cm 정도 높이로 2단(段)을 쌓아 올린 것으로 이도부분(羨道部分)에서 끊기고 있었다.

따라서, 7월 4일에는 발굴현장에서 1차지도원위회의(次指導員委員會)를 개최하여 이 내호석열(內護石列)의 성격과 석실내부(石室內部)의 조사방법 등을 논의하고 이어서 이도입구(羨道入口)를 노출시키기 위해 남아 있는 봉토제거작업(封土除去作業)을 계속하여 7월 7일에는 이도입구(羨道入口)의 폐쇄부(閉鎖部)를 완전히 노출시켰다. 연도입구는 상당한 두께로 점성(粘性)이 강한 점토(粘土)와 작은 역석(礫石)을 섞어 단단하게 다져 폐쇄하였는데 그안에는 간간히 회(灰)도 섞여 있었다 (圖4). 이 이도폐쇄부(羨道閉鎖部)를 제거하고 연도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던 인두대(人頭大)크기의 천석(川石)과 할석(割石)이 섞인 폐쇄석(閉鎖石)을 모두 들어 내자 한 개의 판장석(板狀石)으로 된 문비석(門扉石)이 그 모습을 드러 내었다. 문비석(門扉石)은 폭 0.5~1m, 높이 1m 크기의 부정형(不定形) 판장석(板狀石)으로 되어 있었는데 석실(石室) 입구와의 틈사이에는 작은 돌을 끼워 놓고 그 위에 회(灰)를 두텁게 발라 완저히 밀폐시켰으며 연도의 바닥은 회(灰)를 섞어 단단하게 다졌다.(圖5). 또 이기간동안에는 고석(古石)의 남편(南便)과 봉분(封墳) 동쪽부분에 대한 탐색조사(探索調査)를 실시하여 고분 주변의 토층상태(土層狀態)와 내(內)·외호석열(外護石列)의 연결상태를 확인하였다.

조사에 착수한지 한달만인 7월 15일에 이르러 석실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문비석(門扉石)을 제거하고 석실내부조사(石室內部調査)에 착수하였다. 문비석(門扉石)을 드러내자 석실 동벽 윗쪽에 뚫린 도굴구멍을 통해 유입(流入)된 토사(土砂)가 석실(石室)입구에 반쯤 채워져 있었고 석실안의 사벽(砂壁)과 천장은 도굴구멍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상태로 남

아 있었다. 석실내부에 흘러들어온 토사(土砂)를 제거하자 시상상면(屍床上面)의 윤곽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는데 도굴로 인해 완전히 교란되어 시신(屍身)의 흔적이나 유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시신(屍身)아래에 받쳤던 석제(石製) 두침(頭枕)과 족좌(足座)는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석실 북동쪽에 놓여 있었다. 시상(屍床)의 윤곽을 노출시키기 위해 시상과 석실 동벽사이를 조사하던 중 7월 19일 처음으로 인물상(人物像)의 토용(土甕)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다음날인 7월 20일에는 남벽과 시상(屍床) 사이의 석실바닥부분에서 다수의 토용(土甕)과 청동제십이지상(靑銅製十二支像)을 비롯하여 내부에 남아 있던 각종 유물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 냈던 것이다.

석실내부의 출토유물 수습을 모두 마치고 7월 28일 발굴현장에서 2次 지도위원회의(指導委員會)를 갖고 그동안 출토된 중요유물들을 공개한 후 곧이어 시상상면(屍床上面)에 대한 세부조사(細部調査)와 석실내부(石室內部)의 토층상태(土層狀態)등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실측(實測)에 들어갔으며 실측이 완료된 후 석실내부(石室內部) 복구작업(復舊作業)을 마치고 8월 19일 연도를 폐쇄하면서 석실내부조사를 모두 끝마쳤다.

8월 20일 부터는 봉분의 축조상태를 규명하기 위한 단면조사(斷面調査)와 외부 실측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곧 이어 복구작업(復舊作業)을 실시하였으며 8월 31일 모든 조사를 끝내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2. 석실(石室)의 구조(構造)

발굴조사 결과 밝혀진 석실(石室)의 구조(構造)를 살펴 보면 석실(石室)은 고분의 중심에 해당하는 위치에 서남향(西南向)으로 축조되어 있었으며 이도(羨道)는 석실 남벽의 중앙에 직각을 이루고 연결되어 있었다.

현실(玄室)은 동서(東西) 2.6m, 남북(南北) 2.5m, 높이 2.8m, 크기로 평면(平面)은 정방형(正方形)에 가까웠으며 네벽을 시상 높이에서부터 차차 폭을 좁혀 궁륭형에 가까운 형태로 쌓아 2매(枚)의 판장석(板狀石)으로 천정을 덮어 마무리하였다. 내벽(內壁)은 모두 장방형(長方形)의 할석(割石)을 사용하여 고르게 이를 맞추어 쌓고 틈사이에 회(灰)를 발라메웠으며 시상 주변과 북쪽 벽면에는 면회(面灰)를 한 흔적이 있었으나 벽화(壁畵)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현실 동벽의 중간부분에는 약 50cm 폭으로, 도굴갱(盜掘坑)으로 추정되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동벽 남쪽 중간부분과 이도(羨道) 동편의 남벽 중간부분에도 벽석(壁石)이 일부 파손되어 있었으나 외부와 관통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도굴 구멍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며 나머지 현실벽(玄室壁)은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圖6). 현실내부(玄室內部)의 토층조사(土層調査)결과 이 무덤의 원지반(原地盤)이 마른 냇바닥으로 밝혀졌는데 석실(石室)은 바로 이 냇바닥을 이용하여 그 위에 작은 천석(川石)과 할석(割石)을 사용하여 층층히 쌓아 축조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런 이유에서인지 석실내부나 외부에서도 배수시설(排水施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圖7).

시상(屍床)은 현실 남벽에서 80cm, 동벽에서 35cm 거리를 두고 서벽과 북벽에 붙여 장축이 동서로 놓이도록 장방형으로 마련되었으며 크기는 동서 2.25m 남북 1.7m 높이 40~50cm 규모이었다. 시상상면(屍床上面)에 대한 단면조사 결과 시상은 북면(北面)을 제외한 면을 외주(外周)에 윗면이 평평한 할석(割石)으로 면을 맞추어 쌓고 내부에는 크고 작은 천석(川石)과 할석(割石)을 채워 넣어 축소한 뒤 상면(上面)과 측면(側面)에 점토(粘土)를 두텁게 발라 면을 고른 다음 그 위에 회(灰)칠을 하며 마무리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圖8). 그

런데 이 시상의 서쪽 약35cm 부분에는 회(灰)를 바른 흔적이 전혀 노출되고 있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채워져 있던 천석(川石)들을 드러내자 할석(割石)으로 가지런히 쌓은 시상 서측면(西側面)이 노출되었다.(圖9). 따라서 시상은 원래 북벽에 붙여 동벽 뿐만 아니라 서벽과도 같은 간격으로 공간을 두고 축조 한 뒤 다시 서쪽 부분에만 천석(川石)을 채우고 남쪽 측면에만 회를 발랐음을 알 수가 있었다.

현실(玄室)의 바닥은 원지반(原地盤)인 모래층위에 점성(粘性)이 강한 점토(粘土)를 덮고 촘촘히 흑색의 울석(栗石)을 깔았는데 간간이 조개편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강돌이 아닌 바다돌로 생각되었으며 이 윗면으로 각종 부당유물을 배치하였다.

이도(羨道)는 현실(玄室) 남벽 중앙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역시 할석(割石)을 사용하여 양벽(兩壁)을 고르게 쌓고 틈사이에만 회(灰)를 발랐으며 장방형(長方形)의 판장석(板狀石) 3매(枚)를 덮어 천장을 만들었다. 크기는 폭 1m 길이 1.5m 높이 1.2m 였으며 바닥은 점토(粘土)와 회(灰)를 섞어 단단하게 다졌다. 이도(羨道)의 폐쇄(閉口)는 이도미석(羨道梃石) 앞을 1매(枚)의 판장석(板狀石)으로 막고 틈사이를 작은 돌로 채워 회(灰)를 두껍게 발라 밀폐시킨 후 연도입구까지 천석(川石)과 할석(割石)으로 차곡 차곡 쌓고 외부(外部)는 작은 천석(川石)에 점토(粘土)와 회(灰)를 섞어 단단히 다져 마무리 하였다.

3. 봉분(封墳)의 축조(築造)

봉분의 규모는 파괴가 심하여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으나 봉분 서남부와 동쪽 부분에서 노출된 외호석지대석(外護石地臺石)을 기준으로 복원 해 본 결과 저부(底部) 직경 16m, 둘레 약 50m 임이 밝혀 졌으며 높이는 3m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고분에는 內·外 2중으로 호석(護石)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내호석열(內護石列)은 봉토 속에 묻히고 외호석열(外護石列)만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다.(圖10). 내호석열은 큰 할석(割石)과 작은 천석(川石)을 사용하여 1~2단(段)으로 비교적 가지런히 쌓았는데 연도 입구 부분에서 약 2.8m 폭으로 석열(石列)이 끊기고 있었으며 높이 70cm 내외, 전체 직경 약 9m규모였다. 외호석열은 내호석열과 3m 거리를 이루며 나란히 고분 외주(外周)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봉분 서북편 부분은 모두 결실되고 없었고 2/3 정도는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 되었으며 주변 민가에 산재해 있는 석재들로 미루어 면석(面石)과 갑석(甲石)을 갖춘 형태 일 것으로 추정되나 제위치에 남아 있는 면석이나 갑석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봉분은 서남부의 동벽에 나타난 토층상태를 보면 원지반인 모래층 위로 천석(川石)과 점토(粘土)를 섞어 석실외벽(石室外壁)과 외호석(外護石) 사이를 채우고 그 위에 점성(粘性)이 강한 암갈색의 점토(粘土)를 두껍게 피복하였으며 이 위부터 점토(粘土)와 사질토(砂質土)를 쌓아 구축(構築)하였으며 (圖11) 봉분 동쪽에 동서로 설정하여 조사한 탐색트렌치에서는 외호석과 내호석 사이에 조밀하게 천석(川石)을 깔고 있음이 확인되었다.(圖12).

4. 유물(遺物)의 출토상태(出土狀態)

<봉토내(封土內)>

봉토내부에서는 각종의 토기(土器)와 토기편(土器片)들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형태를 알 수 없는 작은 파편들이었으며 봉분 서남부의 교란층에서는 후대에 암매장 한 것으로 보이는 인골(人骨)(두개골(頭蓋骨))등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 봉토내부에서 출토된 토기

편들은 봉토 구축시나 교란층에 섞여 들어간 것들로 그 자체의 연대폭은 큰 것으로 보이며 이 고분의 축조시기를 밝히는 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圖13).

<석실내부(石室內部)>

석실내부에서는 토용(土甬) 29점(點)을 비롯하여 토마(土馬)4점(點), 청동제십이지상(靑銅製十支像)7점(點)과 토기호(土器壺), 토기고배(土器高杯), 토기합(土器盒), 토기완(土器盥) 등 각종 토기류(土器類)가 13점(點), 그리고 시신(屍身)을 안치하였던 석제두침(石製頭枕), 족좌(足座), 견좌(肩座)와 시상상면(屍床上面)에서 피장자(被葬者)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편(齒牙片)과 구슬 등 모두 64점(點)의 유물(遺物)이 수습되었다.

시상상면(屍床上面)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유물이 도굴되고 없었으며 시신의 흔적과 피장자가 착장(着裝)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신유물(裝身遺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시상 위에서는 시상 동북쪽 부분에서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뒤집혀진 채 남아 있는 석제두침(石製頭枕)과 바로 서편에 남아 있는 토기완(土器盥) 1점(點), 토마편(土馬片) 1점(點)과 함께 다수의 기와편(片)들이 수습되었으며 특히 석실 북벽의 중간부분과 그 동편에서 약 40cm 간격을 두고 자상(子像)과 축상(丑像)의 청동제십이지상(靑銅製十二支像)이 출토(出土)되었다. 그후 시상상면(屍床上面)에 대한 세부조사시 시상 위를 덮고 있던 점토내(粘土內)에서 피장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편(片)과 함께 유리제 곡옥(曲玉) 4점(點), 유리구슬 4점(點), 유리제 관옥(貫玉)1점(點)이 수습되었을 뿐 더 이상의 유물은 발견할 수 없었다.

석실내부의 유물들은 대부분 시상 밖의 석실바닥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 먼저 시상과 동벽사이 바닥부분에서는 북벽에 붙어서 석제족좌(石製足座)가 세워진 채 노출되어 있었으며 그 밑에 토기완(土器盥) 1개가 깨어진 채 깔려 있었으며 그 바로 남쪽의 약간 낮은 레벨에서 머리부분이 떨어져 나간 토용(土甬)이 1개 처음으로 출토되었고 그 남쪽에서 역시 목이 부러진 여인상(女人像)의 토용(土甬) 2개와 떨어진 머리부분이 청동용기편(靑銅容器片) 등과 함께 노출되었다. 그리고 앞서 출토된 유물 아래에서는 인화문(印花文)이 새겨진 토기용(土器甬) 1개가 뚜껑이 깨진 채 출토되어 또 그 바로 남쪽에서 몸통이 접시형태로 된 고배(高杯)가 1개 출토되었고 그 동편에 인접하여 묘상(卯像)의 청동십이지상(靑銅十二支像)이 동벽에 세워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시상(屍床)서남편 바닥부분에서는 토기호(土器壺), 토기고배(土器高杯) 등 7개의 토기(土器)들과 함께 문(文)·무인상(武人像)과 여인상(女人像)의 토용(土甬)이 각각 3개씩 모두 9개가 무더기를 이루어 출토되었는데 모두가 교란된 상태였으나 출토된 위치로 보아 (圖16)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순서로 시상을 향해 나란히 세워져 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圖14). 또 이곳에서는 남벽(南壁)과 서벽(西壁) 중간 부분에서 미상(未像)과 신상(申像)의 청동십이지상(靑銅十二支像)이 세워져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남벽 중간의 미상(未像) 동편의 이도(羨道) 중간부분에 오상(午像)의 십이지상(十二支像)이 넘어진 상태로 출토되어 원래의 방위와 상관(相)이 없이 석실내부의 방위에 따라 십이간지(十二干支)의 순서대로 십이지상(十二支像)을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동벽 북쪽부분의 묘상(卯像) 북편에서 인상(寅像)의 십이지(十二支)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석실 남동부분과 서북편에서 노출될 것으로 예상 했던 나머지 5개의 십이지상(十二支像)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 나머지 십이지(十二支)는 도굴당시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상 동남편에서는 완전히 교란된 상태에서 각종 형태의 토용(土甬)들과 토마(土馬) 등 유물들이 위 아래로 중첩되어 출토되었으며 시상 위에 놓였던 견좌(肩座)가 두 조각으로 깨진 채 이곳에서 출토되었다. 이 곳에서 출토된 토용(土甬)들은 서남편에서 출토된 토용에 비해 크기가 작고 붉은

채색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이 곳에서는 다수의 토기편(土器片)들과 함께 토용(土俑) 16개, 토말(土馬) 3개가 출토되었으며 교란이 심하여 원래의 위치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圖 15).

IV. 출토유물(出土遺物)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유물은 봉토(封土)와 석실내부(石室內部)에서 모두 출토되었는데 봉토출토(封土出土) 유물은 대부분이 형태를 알 수 없는 파편들로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어서 여기에서는 석실내부 출토유물 중 정리가 완료된 중요 출토유물만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1. 토용(土俑)(圖, 16, 17, 18, 19)

토용(土俑)은 전체 28점 가운데 남자상(男子像) 15점, 여자상(女子像) 13점으로 나누어지며 남자상(男子像)은 모두 머리에 복두(幘頭)를 쓰고 있고 활(笏)을 잡고 있는 문인상(文人像), 활을 잡고 턱수염이 마치 서역인(西域人)처럼 텃수룩하게 표현된 문인상(文人像), 그리고 마치 두 사람이 마주 보고 대련하는 모습의 무인(武人)의 태견상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채색(彩色)이 되어 있어 정교함과 입체감을 더해 주고 있다. 여인상(女人像)은 모두 두 손을 모아 상대방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얼굴 모습은 모두 상이하게 표현되었다.

이들 토용(土俑)은 전체 길이 12~22cm 크기로 매우 사실적인 수법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채색(彩色)된 토용(土俑)은 전신상을 흙으로 빚어 만든 뒤 백토(白土)를 입히고 그 위에 붉은 색으로 채색(彩色)을 가한 것이며 이들 신라토용(新羅土俑)의 특색은 이제까지 부여 정림사지(定林寺址)에서 출토된 도용(陶俑), 또는 신라지역(新羅地域)에서 출토된 토용(土□)들과 비교하면 인물(人物)묘사에 있어서 엄격한 사실의 재현에 보다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토용은 무덤속에 시신과 함께 묻은 부장품으로 죽은 후에도 생존자와 같이 부릴 사람을 인물상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덤이 주인공과 함께 노비등 산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제도가 금지되고 난 이후의 일임을 알게 하며 아울러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타나는 기록²⁾ 가운데 지증왕(智證王) 3년(502 A.D) 3월에 왕이 순장을 금했다는 내용이 있어 이 시기 이후부터는 순장이 없어지고 인물토용을 부장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무덤안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된 인물토용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에서 지금까지 확실하지 않았던 당시의 의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 당시의 복식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토마(土馬)(圖 20)

모두 4점이 수습되었는데 시상 위에서 출토(出土)된 것은 파편으로 형태가 완전한 것은 3점이었다. 크기는 높이가 12~16cm 정도로 일정하지 않으며 길이는 17cm 내외로 안장이 없는 것이 2점 안장이 조각된 것이 1점이었다. 형태는 각기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2) 金富軾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智證麻立干 三年條 「春三月 下令禁殉葬 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

데 안장이 없는 것은 모두 꼬리를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형태로 귀의 모양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장이 달린 것은 꼬리를 세갈래로 표현하고 있는데 꼬리 부분에만 붉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다. 시상 위에서 수습된 꼬리 부분 파편도 역시 세갈래로 갈라진 꼬리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것 역시 안장이 조각된 같은 형태의 것으로 추측된다.

3. 청동제십이지상도(靑銅製十二支像)(圖 21)

시상 윗면의 북벽 중앙부분에서 부터 시계방향으로 12간지(干支)의 순서에 따라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청동제십이지상(靑銅製十二支像)은 12개가 모두 있었을 것이나 7개(자상(子像), 축상(丑像), 인상(寅像), 묘상(卯像), 오상(午像), 미상(未像), 신상(申像))만이 수습되었으며 나머지 5개는 도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청동십이지상은 높이 8~9cm 크기의 소형(小形)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무덤안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머리는 동물의 모습이나 몸은 사람의 모습으로 상반신을 벗은 채로 두팔은 앞으로 모아 상대방을 공경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허리에는 허리띠와 요갑(腰甲)을 두르고 겹쳐 내린 옷의 표현이 생생하며 제작수법이 세밀하고 정교하며 통일신라 시대의 뛰어난 금속공예기술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십이지(十二支)를 돌에 새겨 무덤의 봉토 주위에 호석으로 발전시킨 것은 신라인의 창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주에는 성덕왕릉(聖德王陵), 김경신묘(金庚信墓) 등에 지금도 잘 남아 있고 또 최근에는 전(傳) 민애왕릉과 김유신묘의 호석열 외부에서 납석제의 12지가 일부 출토 보고된 예가 있으나 이청동제 12지상과는 모습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무덤의 외부가 아닌 무덤 내부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4. 토기(土器)(圖 22)

석실내부에서 수습된 토기들은 모두 13점으로 평저(平底)의 호(壺)종류가 가장 많았고 몸통이 접시형태로 넓고 평평한 모습의 고배(高杯)와 뚜껑의 윗면과 신부(身部) 외벽에 인화문(印花文)이 새겨진 토기합(土器盒)과 같은 형태의 뚜껑, 그리고 소형의 토기합(土器盒) 등이었다. 대체로 통일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는 토기(土器)들로 색조는 대부분 회흑색(灰黑色)이며 소성도는 높은 편이다.

5. 석제품(石製品)(圖 23)

석실내부에서 출토된 석제품은 시신을 안치시킬 때 사용한 두침(頭枕)과 견좌(肩座), 족좌(足座)로서 모두 응회암을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두침은 길이 44cm 폭 18cm 두께 12cm 크기로 윗면 중앙에는 10cm내외 크기의 원공(圓孔)이 낮게 파져 있으며 형태가 완전하다.

견좌는 시상 동남편에서 두조각으로 깨어진 채 수습되었는데 길이 45cm 폭 14.5cm 두께 6.4~8.8cm 크기로 복원되며 족좌는 길이 43.6cm 폭 19.4cm 두께 12.5cm 크기이며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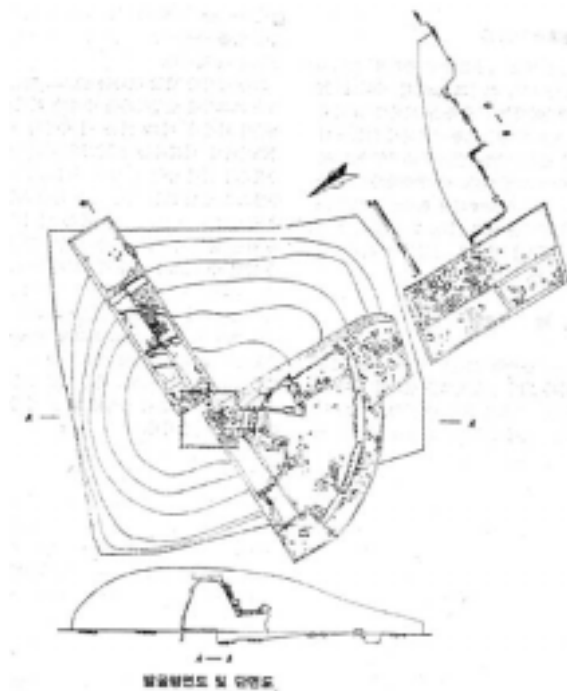
6. 기타유물(其他遺物)(圖 24)

시상(屍床) 상면(上面)에 대한 세부조사시 유리제 곡옥(曲玉) 4점과 소형구슬 4점, 그리고 소형의 유리제 관옥(貫玉)이 1점 수습되었는데 곡옥은 길이 1cm 내외의 작은 것으로 표면이 모두 산화되어 백색(白色)을 띠고 있었으며 유리구슬은 청색(靑色)의 소형구슬로 직경 0.4cm~0.6cm크기였다. 이 구슬들과 함께 수습된 관옥은 직경 0.4cm 길이 0.6cm 크기의 소형으로 역시 청색을 띠고 있다. 그리고 시상 상면에서는 피장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편이 다수 수습되었다.

IV. 결론(結言)

이상과 같이 용강동 고분의 발굴로 통일신라 당시의 신라와 당(唐)과의 문물교류 문화의 전파 및 수용관계를 실질적으로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라에 있어서 6세기 초기에 순장이 금지된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고 통일신라시대의 사회는 물론 복식연구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보다 상세한 발굴 결과는 앞으로 발간될 발굴조사 보고서에 연구결과를 수록할 것이나 일단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무덤의 주인공과 축조연대에 대해서는 묘지석(墓誌石)이나 기록이 없어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왕족급무덤으로 일단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 보며 이 무덤의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역시 묘지석(墓誌石)이나 이를 밝힐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정확한 연대를 밝힐 수 없으나 신라 십이지의 발생, 인물토용(人物土俑)에 나타나는 복식의 형태 등으로 미루어 통일기(統一期)는 분명(分明)하다 하겠으며 일단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걸리는 시기로 보고자 한다. 앞으로 출토된 유물과 피장자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면 보다 확실한 신분과 함께 이 무덤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발굴평면도 및 단면도



圖 1. 일광전 고분 풍경



圖 2. 오석지리석 노출상태



圖 3. 봉분서남부 고관상대



圖 4. 석도리석부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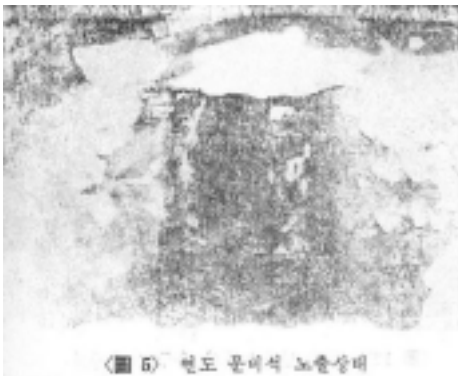


圖 5. 현도 문리석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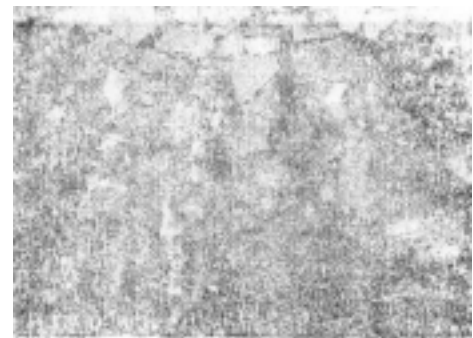


圖 6. 석실 부벽 축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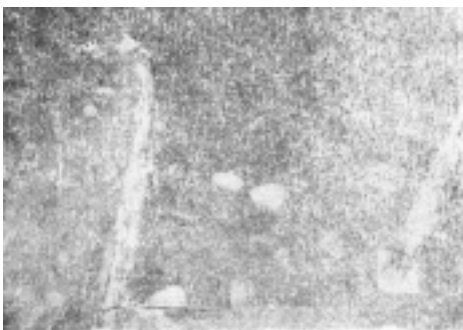


圖 7. 석실 바닥 원저한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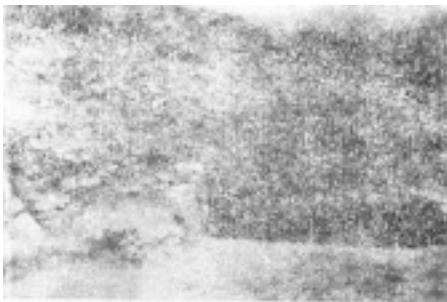
圖 8. 석실 축조상태



〈圖 9〉 서상 서쪽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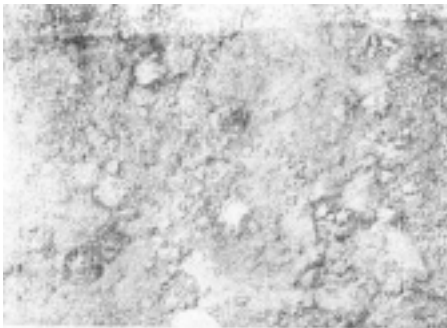
〈圖 10〉 대호석과 의호석



〈圖 11〉 서남부 동벽 포층상대



〈圖 12〉 동면 담석트렌치 유구 노출상대



〈圖 13〉 북포대 유물 출토상대



〈圖 14〉 서상 서남면 유물 노출상대



〈圖 15〉 서상 동남면 유물 노출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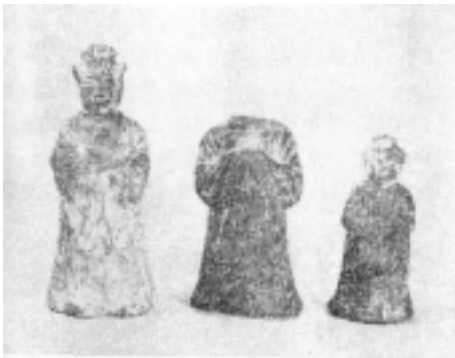
〈圖 16〉 토偶(서상서남면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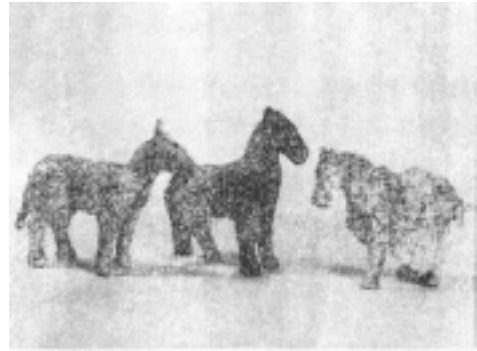
〈圖 17〉 土俑(시상 봉남면 출토)



〈圖 18〉 土俑(시상 봉남면 출토)



〈圖 19〉 土俑(시상 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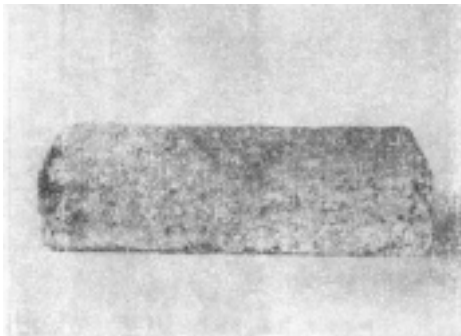
〈圖 20〉 土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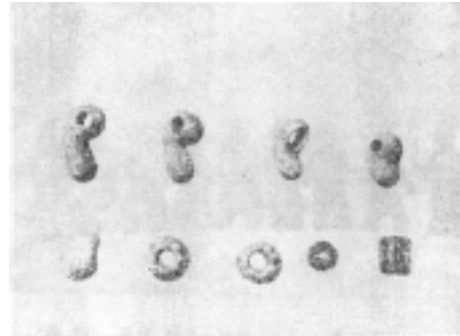
〈圖 21〉 청동제 12지상



〈圖 22〉 각종 토기



〈圖 23〉 瓦 枕



〈圖 24〉 각종 구슬